



즉시 배포용: 2018 년 6 월 1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중요 범죄에 맞서 브루클린의 비영리 학교, 보육 센터, 문화 박물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580** 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

브루클린의 학계 및 지역사회 센터에 첫 번째 보조금 지원

Cuomo 주지사의 **2,500** 만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중요범죄 피해방지 보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의 일환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보조금 지원 목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의 비영리 학교, 보육 센터, 문화 박물관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500 만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중요범죄 피해방지 보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을 통해 **580** 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활동은 이념, 신념 또는 임무 등으로 인해 이 시설들이 중요 범죄 또는 폭행의 표적이 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 1 차 기금으로 브루클린 시설들에서 주관하는 **118** 개 프로젝트에 **5,824,607** 달러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보안을 강화하고 중요 범죄의 위협이 있는 비영리 학교, 보육 센터, 문화 박물관 등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위대한 주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 센터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을 위한 모범을 보여 주면서 모든 주민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벤트에 참석했던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 범죄의 위협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교와 기타 센터들의 강화된 보안 조치가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뉴욕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 기금으로 브루클린 전 지역에서 시설들을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요 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급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주관하는 이 보조금은 각 적격 시설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교육, 카메라, 첨단 기술 장비, 출입문 보강, 조명 설비 개선 및 기타 관련 경비 체제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 5 만 달러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시설을 여러 곳 운영하는 단체들은 총액 15 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세 장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년 10 월에 발표된 지역사회 증오범죄 피해방지 보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은 뉴욕에서 증오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시작한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FY 2017-18 State Budget)으로 뉴욕에서 최근 빈발하는, 편견에 의한 위협, 희롱, 폭력 사건 등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을 관할하는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책팀에는 증오가 동기가 되어 유발된 범죄들 및 편견과 관련된 유행 범죄,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카운티 리더들, 지방 검사들, 교육청 리더들, 지역 경찰 부서들,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을 통해 편견 및 차별 사건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통 전화 및 문자 회선을 개설했습니다. 잠재적인 모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뉴욕주 경찰은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이 모니터링하는 직통 전화와 문자 회선 모두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이 적용되는 차별 사례의 경우 인권국에서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자 체포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모든 제보에는 5,000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비공립 학교, 보육센터, 문화 박물관 등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적인 편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외부 보안조치 강화, 물리적인 보안 강화, 보안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금을 제공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Martin J. Golde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육 센터, 박물관, 비공립 학교들을 보호하기 위해 580 만 달러의 보안 기금을 지원해 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공공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금으로 뉴욕 주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Kalman Yeger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주민을 위해 브루클린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들을 위해 편견과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은 삶의 환경이 제각각인 모든 연령대의 남녀를 위한 기회와 희망의 등대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다양한 지역사회는 향후 오랜 기간 계속 보호될 것입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한 모든 뉴욕 주민은 인권국(DHR)의 무료 상담 전화 (888) 392-3644 번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9 시~오후 5 시. 또는 81336 번으로 “HATE”라는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 page\)](#)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를 @NYSDHSES 로 팔로우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 하시거나 dhses.ny.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